'화려하게 더욱 돋보이게' 명성금박인쇄

다양한 분야서 활용 … 홀로그램박 인기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인쇄는 문화의 산모라고 한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본지에서는 문화의 한 축을 만들고 있는 인협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을지로에 위치한 명성금박인쇄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명성금박에서 작업한 다양한 인쇄물(왼쪽부터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양식, 롯데백화점 홍보인쇄물, 양주패키지, 쇼핑백)

1990년 설립된 명성금박인쇄(대표 강태원)는 충무로에 위치한 금박인쇄사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명성금박인쇄에는 오프셋형 자동금박기인 대국전 자동금박기 1대, 국전 자동금박기 2대, 2절기 2대, 5절기 2대, 10절기(프라톤 금박기) 4대, 반자동 전지금박기 1대 등 13대의 다양한 기종이 설치돼 있다. 13대의 인쇄기는 소형라인인 '카드라인'과 대형라인인 '자동기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카드라인에는 4명이, 자동기계라인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 눈길 끄는 '금박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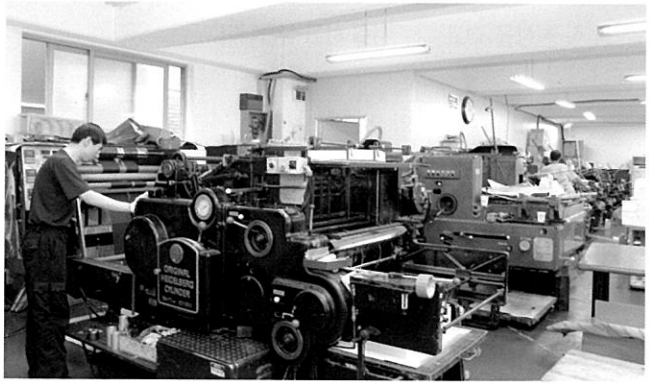
오프셋인쇄가 끝난 인쇄물에 금박인쇄를 한 것은 여인의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일반 인쇄물에 금색이나 은색 등 특별한 색을 첨가하면 인쇄물이 더욱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변한다. 그래서 금박인쇄는 라벨, 명함, 팬시, 카드 및 연하장, 초대장, 패키지, 상장, 서적 표지, 수첩 커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강태원 사장은 "금박인쇄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화장을 하는 것과 같아 인쇄물을 더욱 고급스럽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금박인쇄 제품은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박인쇄는 금·은박 및 색박과 홀로그램 착색필름을 동판이나 알루미늄판을 판화하듯 부식해 압과 열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이다. 각종 컬러 박이 나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는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홀로그램박을 이용한 다양한 효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태원 사장은 "금박인쇄는 인쇄물을 좀 더 화려하고 강한 효과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금박인쇄는 쇠와 유리를 제외한 모든 인쇄물에 가능하지만 원단에 따라 가능한 박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박이 있다. 500가지가 넘는 원단 중에서 특수한 원단의 경우 한정된 박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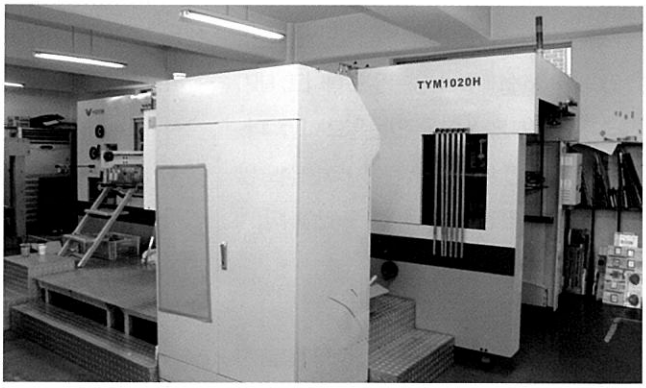
생활의 달인 '강태원 사장'

명성금박인쇄의 주요 인쇄물중 하나는 카드로, 솜씨카드의 다양한 금박인쇄를 담당하고 있다. 솜씨카드는 전통카드, 축하카드, 축하봉투 등 다양한 카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카드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의 전통문양과 색감, 소품 등을 이용해 만든 수공예카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선명한 색상과 화려한 문양을 담고 있는 '한복카드'를 공급하고 있다. 그것이 인연이 돼 솜씨카드와 함께 SBS 생활의 달인 31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강태원 사장은 "솜씨카드는 탄탄한 카드사중의 하나인데, 사업초기부터 우리 회사와 인연을



명성금박인쇄에 설치된 중소형 금박기



오프셋형 자동금박기인 대국전 자동금박기

맺었다. '한복카드'는 한복의 섬세함을 그대로 카드에 담아 정교하고 우아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만약 한복카드를 일반 오프셋인쇄로만 인쇄했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어필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프셋인쇄에 금박인쇄를 더했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한복카드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법령집' 제작 기억에 남아

명성금박인쇄는 25여년 동안 다양한 금박인쇄를 작업했다. 각종 책자 표지작업을 비롯해 캘린더, 카드, 연예인 사진집, CD 및 DVD, 쇼핑백,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박인쇄를 작업했다.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양식은 20여년 동안 작업하고 있다. 강태원 사장은 그동안 작업했던 인쇄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쇄물로 '대한민국 헌법 법령집'을 꼽는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령집 제작에 일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작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태원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 법령집을 인쇄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사업 초기라 금박인쇄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했지만 원단재질이 특이해 금박인쇄를 할 수가 없었다. 3~4번 정도 실패를 거듭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야 겨우 인쇄를 할 수 있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법령집이 발간됐다고 모든 신문에서 게재했는데, 그 뉴스를 보며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태원 사장은 "일반적인 금박인쇄 작업은 상관없지만 특수한 원단에 금박인쇄를 할 경우 작업자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25년간의 운용노하우를 통해 어떠한 금박인쇄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45-7 배원빌딩 3층
전화 | 02-2269-5100 **팩스** | 02-2269-5117

미니인터뷰

명성금박인쇄 강태원 사장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 … 불우 청소년도 지원"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85년 동대문상고를 졸업한 후 인쇄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환으로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다행히 눈썰미가 좋아 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금박인쇄는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재미도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은 어떤가요?

회사에 입사한 지 3년만에 퇴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1살의 나이에 창업을 했는데, 처음 5년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금박인쇄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많은 인쇄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셋인쇄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금박인쇄사는 오프셋인쇄사의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쇄사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박인쇄를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경찰청소속 청소년육성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7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편모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항상 밝은데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의 말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고 꿋꿋이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서 든든히 후원하고 있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쇄업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가격경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품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변화하는 시장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